

군산시-군산대, 복합센터 설립 시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거점형 늘봄센터·스포츠 시설·교육연구 시설 입주 예정 '지역연계 복합센터' 설치로 학생·지역주민 편의 제공·체육복지 실현 '기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잘사는 군산시를 위해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가 손을 잡았다.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가칭) 지역연계 복합센터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8년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지역연계 복합센터'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역연계 복합센터 조감도.

지역연계 복합센터 사업은 교육부와 군산시, 국립군산대학교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은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는 올해 5월 교육부 신규사업 선정을 통과받았으며, 올해 12월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확정 시 총사업비는 316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90%는 국비로 부담하고, 군산시가 10%를 지원한다. 이번 세워질 군산시 지역연계 복합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대학 내 두드림센터 옆 부지에 연 면적 8,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자랑한다. 복합센터 내부에는 △수영장 △거점형 늘봄센터 △교육연구시설(디지털 스포츠센터) 등이 배치될 예정이며, 수영장과 거점형 늘봄센터는 군산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고, 다양한 예체능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대학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영장 외에도 스크린 승마, 스키, 조정, 골프, AR클라이밍 등의 디지털 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학생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립군산대학교에 수영장과 디지털스포츠센터 시설을 갖춘 지역연계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및 체육복지 실현이 가능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지역연계 복합센터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인구정책 2차 전략회의 개최

주택·일·가정양립 등 신규사업 발굴 집중 논의

'키움옴·가족행복 도시' 군산시는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22일 주택 및 일·가정양립 관련 인구정책 2차 전략회의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논의했다.



지난 1차 돌봄 분야 전략회의에 이어, 2차 전략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했던 실무 부서와의 세 차례 릴레이 회의에서 의논된 사업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군산형 공공주택 지원 사업인 가칭민원의 꿈담주택 △일·가정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초등생 학부모 근로자 대상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장 장려금 지원 △군산에 태어난 아이들의 꿈 지원 지역정착 자산 형성 프로젝트 등을 검토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점차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정책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고민중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심도있게 분석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군산시의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중독 예방 네트워크 구축 위해 '맞손'

익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원광대병원, 업무협약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현기)는 22일 원광대학교병원 권역마약류치료보호기관(센터장 김대진)과 중독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발굴·치료·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독 문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체계 구축 △중독자 치료·보호·상담 강화 △중독 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정보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독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독자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 4대 중독 선별검사와 상담, 예방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중독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063-855-9900) 또는 온라인 상담(Addicti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에서 교복 입고 추억의 수학여행 어때?"

익산시민이 직접 기획한 3개 여행 상품 마련... 9~11월 매월 1회 운영 · 28일부터 신청

이번 가을 특별한 여행을 찾고 있다면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익산의 숨겨진 매력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익산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추억의 수학여행(추수행) 익산 어때?'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3개의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교복을 입고 익산이 품고 있는 장점과 매력을 찾아 추억의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다.



여행 상품은 지난 4~7월 진행된 '문화도시 삼삼오오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을 통해 시민들이 개발한 여행 코스를 상품화한 것이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차례대로 '맛있는 성지순례 천연 MSG 감성기차여행'으로 9월 21~22일 진행된다. 나비위성당, 아가페정원, 여산동헌 등 성지순례와 추억의 롤러스케이팅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통해 철도 요금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두 번째 코스는 '1500년 백제왕도 속 수학여행'을 찾아서 떠나는 매스 투어(Math Tour)로 10월 19~20일에 운영된다. 석불사, 미륵사지, 백제왕궁 등 문화유산을 수학으로 풀이하는 역사 교육 코스로 춘포에서의 RPG체험, 만경강 자전거 투어가 더해져 할링까지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코스는 '출발 익산스쿨! 학교종이 뱅뱅뱅'으로 11월 2~3일 진행되며 왕궁리유적과 다이노키즈월드, 공공승마장, 전북과학교육원 등을 방문한다. 익산시 곳곳이 학교가 돼 과학, 수학, 체육 등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 추천한다. 여행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마수리늘봄교육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수리늘봄교육회(063-837-0088)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시동'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첫 개최

군산이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는 22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구성된 '군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 중간 보고 청취 및 토론 등을 진행했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인 신원식 군산 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국장급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군산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군산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녹색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

캠퍼스, 하반기 교육생 모집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된 군산시가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나섰다. 군산시는 지역 내 대학들과 손잡고 운영하는 '2024년 하반기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8월 21일 현재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https://lms.jbns.or.kr>)에서 선착순 접수 중이며, 교육과정은 8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 군산간호대에서 총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선택의 폭도 넓다. 먼저 군산대는 △군산 역사 기행 △금융·경제 관련 강의를 제공한다. 호원대에서는 △심리 분석 △태리 △호신술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장대에서는 △고령친화식품 개발 △천연염색 소품 제작공정이, 마지막으로 군산간호대에서는 △MBTI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운영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손님용 앞치마

제작·대표 음식점 배부

익산시가 식품접객업소의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손님용 앞치마 3,000장을 제작하고 지역 대표음식점 101개소에 업소당 20~60장을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치마 배부 시 현장에서 친절서비스 위생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시 대표음식점은 총 101개소로 대동마을 맛집과 향토음식점 22개소를 비롯해 모범음식점 41개소, 위생등급업소 38개소가 있다. 시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외식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앞치마 제작·배부를 결정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원광지역지원센터(센터장 윤상열)의 자활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앞치마를 제작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